【서식 5】

자기소개서(접수번호2)

소 속		직 위		성 명	

1. 성장 배경

OO지역 작은 시골마을에서 3남 4녀 중 6째로 태어난 저는 제 의견이나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다른 형제자매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배려하는 아이였습니다. 묵묵히 자녀들을 보살피고 농업에 전념하시는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고 그런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이라면 해가 저물고 어두워져도 투정하는 일 없이 일을 마치려 노력하는 아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한 성격 탓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믿음과 신뢰가 가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신임과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뒷정리처럼 남들이 신경쓰지 않는 일, 눈에 띄지 않는 일들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보다는 우리 모두를 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남모르게 솔선수범하곤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묵묵히 일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중고, 그리고 대학교 12년간의 학교 생활을 하면서 크게 친구들과 싸운 기억이 없고, 가능하면 친구의 얘기를 들어주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성장하면서 내면화된 이해와 배려의 마음은 교직 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2. 지원 동기 및 포부

가.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싶습니다.

처음 임용은 중학교였는데 1년 6개월 근무하고 감축으로 전보한 이후 줄 곳 고등학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교감 발령 전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OO중학교의 교직 생활이 가장 행복했던 교직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 모교 OO중학교에서 담임을 하며 먼 후배인 제자들과 축구, 야구를 하며 함께 공유했던 많은 시간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나이 많은 선배 담임선생님을 무척 따랐고 그런 학생들을 보며 가슴 뜨거웠던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진안제일고등학교에 지원한 동기 중 하나도 사랑하는 학생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으며, 교직생활의 대부분을 보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진안제일고등학교에서 교직원,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 나갈 밝고 건강한 학생들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나.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학교로서 그 성과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진안제일고는 지역소멸 위기 속에 있는 소규모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기숙형 거점학교이자 자율형 공립고 2.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산림환경·수자원 기반 ESD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학생·학부모 만족도 98%이상이 나왔는데, 이는 교직원의 헌신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 성과가 연구학교 종료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교장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29년의 교직생활 중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2022 개정교육과정 도입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자율형 공립고 연구학교 운영 등으로 많은 업무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교모 학교에서의 근무 경력과 교감으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가능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진안제일고가 풀어야 할 현안 문제는 교직원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라. 수학교사로서의 경험을 학교와 지역에 나누고 싶습니다.

진안제일고는 2021년부터 수학나눔 중심학교를 운영하며 지역 학생을 위한 수학·과학·ESD 체험전을 운영하며 배움의 기회를 넓혀 왔습니다. 수학교육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수학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쳐 온 저에게 이 활동은 특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수학은 지역의 산림과 수자원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후 문제를 탐구하는 ESD 수업의 든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수학나눔의 전통을 특화 교육과정과 연결하고, 관내 중학교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으로 지역 학생들이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3. 교육철학

가. 함께 결정하는 학교 – 민주적 합의의 존중

좋은 결정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교장이 모든 것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사, 행정직, 교육공무직 모두가 의견을 내고 함께 결정하는 협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의견을 많이 듣는 성격으로 교장의 의견을 강조하기 보다는 교직원의 의견을 먼저 듣고 협의하는 교장이 되겠습니다.

2. 교사가 행복한 학교 - 전문적학습공동체로 함께 성장하는 학교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사가 수업과 학생에게 마음을 쏟을 수 있을 때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그 기쁨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교사를 수업에서 멀어지게 하는 업무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한 사람에게 업무가 몰리기 쉽고, 저경력 교사의 부담도 큽니다. 업무를 둘 이상이 함께 맡는 구조를 만들고, 반복되는 문서와 평가 양식은 표준화하여 교사의 시간을 수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가 교사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연구학교 중간평가서를 참고하여 ESD 교사회와 교과별 모임이 실제 수업을 함께 설계하고 나누는 자리가 되도록 정기 협의 시간을 시간표에 확보하고, 필요한 연수와 예산을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협약 대학과 연계한 수업 컨설팅과 학기말 성찰 워크숍을 통해 경력이 많은 교사와 적은 교사가 서로 배우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교장은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사가 마음껏 가르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사가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학교, 그것이 제가 만들고 싶은 진안제일고의 모습입니다.

3. 즐거운 학교 -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

학생들에게 학교는 배움터이자 생활의 터전입니다. 특히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많은 진안제일고에서는 학교생활 전체가 곧 교육입니다.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하는 활동을 많이 만들어 학생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학생 자치를 존중하여 학생 자치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겠습니다.

4.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 지역 연계 교육과정 지원

진안의 숲과 물은 그 자체로 살아 있는 교과서입니다. 그동안 쌓아 온 산림환경·수자원 교육과정과 협약기관과의 협력이 지속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여 학교가 지역의 미래를 함께 키우는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